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동북아통상과 이재근 과장(044-203-5690), 윤진영 사무관(044-203-5691)

한중, 산업장관 및 통상장관 회의 개최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공업정보화부(중국명칭: 공업신식화부) 마오 웨이 장관 및 상무부 까오 후 청 장관과 각각 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였음.

-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, 상무부는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,

- 양 부처는 시 주석 방한 1일차인 7월3일 오후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"산업협력증진 MOU" 및 "지역통상협력 MOU"를 각각 체결하였음.

  * 산업협력 MOU는 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, 신소재, 석유화학, IT 등 양국 관심분야별로 협력 채널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

  * 지역통상협력 MOU는 양국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산업부가 '10년부터 광동성, 섬서성 등과 추진해오던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에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양국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 상호 투자 유

치 및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□ 산업장관 회의에서 윤 장관은 금번에 체결한 산업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 산업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, 우선적으로 교역규모가 큼에도 양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음

- 또한 높은 수준의 한중FTA 체결을 위해서 공신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하였음

□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'13년 대통령 방중시 양 부처가 채결한 "경제통상협력 제고 MOU"에 따라 이후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2차례 개최했던 한중통상협력협의회 결과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았음.

- 윤 장관은 어제 한국김치의 대중 수출애로를 해결했듯이 양 부처가 통상현안을 터놓고 애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경우 양국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, 향후 동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.

- 또한 윤 장관은 지역통상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 부처가 상대국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음.

□ 두 장관은 한중 FTA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, 어제 정상 간 합의된 바와 같이 **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 장관이 수시로 접촉하여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하였음.**

□ 윤 장관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공신부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향후 양국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간 “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”의 유지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언급하였음.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윤진영 사무관(☎ 044-203-56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